

ALEC SOTH

16 July - 29 August 2009



Impala, Chromogenic print, 81.3x101.6cm, 2005

누군가는 박찬욱의 인터뷰에서 포토그래퍼 알렉 소스의 이름을 처음 접했을 것이다. 콘트라스트가 강하지 않은 그의 사진들은 마치 새벽녘에 풍경처럼 고요 하면서도 모호한 공기를 품는다. 박찬욱은 <박쥐>의 화면이 그 같은 느낌이기를 바랐다고 한다. "아직 영화를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진이 이 작품에 영감을 제공했다니 무척 기쁘군요. 제 작업이 얼마나 많은 영화에 빛을 지고 있는지는 하늘만 알 겁니다." 알렉 소스의 깎듯한 반응이다.

매그넘 정회원이기도 한 그는, 워커 에반스, 로버트 프랭크, 윌리엄 이글스턴 등이 이어온 미국 사진 전통의 계보에 놓일 작가로 평가 받는다. 현실에서 소재를 취하되 이를 시적인 이미지로 재해석해내는 게 알렉 소스의 방법론이다. 작가의 개성은 '독 데이즈, 보고타, '슬리칭 바이더 미시시피', 그리고 '나이야가라'와 같은 일련의 연작에서 선명하게 읽힌다. 해당 지역의 실상을 전달하는 건 그의 관심사가 아니다. 알렉 소스는 사진으로 그만의 보고타, 미시시피, 그리고 나아아가라를 재구성한다. "사진은 편집의 예술입니다. 어떤 걸 찍느냐 만큼이나 무얼 프레임 밖으로 제외 시킬까도 중요한 문제죠. 연작을 구성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진을 탈락 시키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하지만 그 때문에 전체의 느낌이 달라진다면 어쩔수 없겠죠. 전 좋은 사진보다 좋은 편집을 더 높게 평가 합니다." 이런즉 그는 스스로가 다큐멘터리 사진가 보다는 다큐멘터리적 이미지 생산자라고 (Creator of Documentary)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작업을 고집하는 이유라면 간단하다. "진실을 함축적으로 담아내려 한다든지,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전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그에게 아름다움이란 현실과 연계를 놓치지 않는 풍경에만 적용되는 가치다. 2년 전, 매그넘의 의뢰로 파리 컬렉션을 촬영- 그 결과물은 매그넘 포토스가 출간한 <패션 매거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기도 했던 소스는 당시 경험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다. "그 일을 하다보니 살짝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저와는 결코 연결될 수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그 '연계 상실'이 작업 주제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미네소타에서 추가 촬영을 했어요.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상이었거든요. 다른 어느 곳만큼이나 아름답고 또 현실적이죠." 자신의 사진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단어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에게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serendipity(우연한 발견)', 그리고 'wandering(방랑)'이었다. "제 작업은 홀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며, 이 세상 안을 떠도는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은 참나적일 뿐이지요." 시야말로 사진과 가장 유사한 예술이라고 믿는 포토그래퍼의 설명 답다. 카메라로 쓴 그의 시들은 8월 29일까지 갤러리 아이엠아트에서 만날 수 있다.



Terrace Court, C print, 101.6x81.3cm, 2005

w 에디터 정준화